

고려 '비보풍수'·조선 '인성풍수' 땅의 길흉은 사람의 덕을 따른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조선왕실의 풍수문화

최원석지음

"길흉의 조건은 땅에서만 구할 수 없으며 사람의 덕(德)을 받아야 따른다."

조선왕조 풍수 교과서 '지리신법호순신'에 나오는 내용이다. 책의 저자는 길흉이 작동하는 조건에서 덕이 주고, 풍수는 중이라고 보았다. 이른바 "스스로 수양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인성풍수의 개념이다.

인성의 함양, 윤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땅의 길흉은 사람의 덕을 따른다는 것이다. 세종을 비롯한 왕들이 민생을 먼저 고려해 산릉 조성을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땅은 자연지형이지만 명당은 풍수경관으로 관계를 맺는 주제들에 의해 완성된다. 조선왕실의 풍수가 비보에서 벗어나 길흉을 '덕'과 '인성'이라는 내적인 장치에서 바라본 이유다.

태조는 한양천도부터 풍수사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왕들 또한 풍수 조예가 깊었으며 이를 적극 활용했다. 그러



나 문제는 후기로 갈수록 지나친 맹신과 길지에 대한 집착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으며, 더러는 풍수 악용으로 국력이 소모되기도 했다.

조선의 풍수문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조선왕실의 풍수문화'는 풍수경관의 미학 등을 아우른다. 저자인 경상국립대학교 최원석 교수는 한국풍수를 지리학, 문화사, 인문학 영역으로 탐구해왔다. 이번 책은 그 연장선의 결과물로, 조선 왕실의 풍수경관을 문헌과 현장에서 통시적으로 들여다본다.

고려왕조는 선불교에 기반한 비보풍수를 중시했다면 조선은 성리학 영향을 받은 인성풍수를 강조했다. 지리적 조건에 사람과 문화 역할을 상보적으로 강조했다.

"비보풍수는 불가(승려), 인성풍수는 유가(유학자)에 의해 지식체계가 창도되었다. 고려왕조의 불교적 기조에서 실천된 비보풍수를 조선왕조의 유교적 기조에서 실천된 인성풍수가 대체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풍수 두 기둥은 명당풍수와 비보풍수다. 전자는 이상적인 땅을 찾아서 자리 잡는 풍수인 반면, 후자는 부족한 땅을 보완해 명당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상의 어느 명당도 실제로는 비보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어느 비보도 명당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명당은 이상, 비보는 현실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왕실에서 풍수는 왕권을 강화하

거나 정치권력간의 세력 다툼에 활용됐다. 궁성, 태실, 산릉의 풍수는 대규모 공사, 인력이 소요되는 대사업이었다. 왕은 궁성, 태실, 산릉 풍수 입지와 경관 조성을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썼다.

선조 당시에 "모두들 선왕조 때 간신들이 산릉의 일을 가지고 죄를 얹어 살육한 것만을 생각했다"('선조실록', 33년 9월 2일)라고 통탄한 표현이 있다. 산릉의 일이 왕실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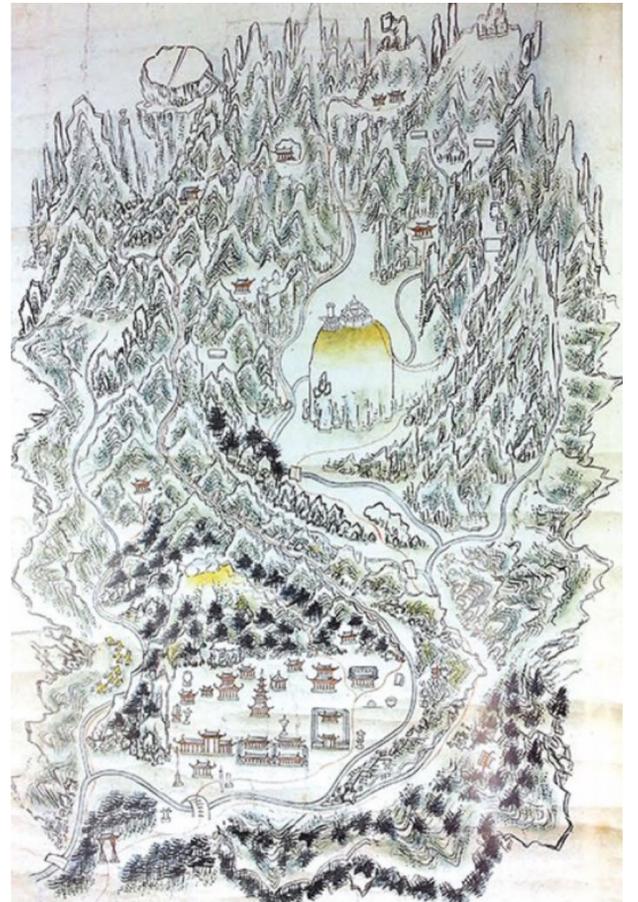
사실 조선의 건국과 한양 천도는 풍수담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쟁을 유발했다. 입지를 비롯해 경복궁의 주산, 명당 논쟁이 그러한 예다. 한양을 도읍지로 정한 이후 도성공간은 성종 때까지 궁궐 주변의 산줄기 비보, 물줄기 비보 등에 집중됐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궁성 주위에 못을 파거나, 정계천 명당수 부분도 한양의 물길비보 측면에서 접근했다.

조선왕실 풍수에는 사회문화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담겨 있다. 도성과 궁궐의 환경계획 외에도 경관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했다. 죽음의 존엄, 영속의 바람은 단순한 산릉 조성이라는 의례를 넘어 장소미학으로 구현됐다. 반면 풍수에 대한 맹신은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고 지나친 산릉 조성은 왕실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됐다.

저자는 우리민족의 풍수인식이 자연경관의 이해와 공간미학에 대한 동아시아적 가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지오북·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조 태봉도. 법주사 뒤쪽으로 봉긋한 범종 모양의 태봉과 주위 속리산의 산세를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지오북 제공>

호박색 밤

심비 제르맹 지음·이창실 옮김

창조적 서사 전개와 독특한 문체로 현대 프랑스 문단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 심비 제르맹. 1981년 단편으로 데뷔한 이후 1985년 발표한 첫 장편 '밤의 책'으로 여섯 개 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작품은 가브리엘 마르케스에 비견되는 미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가는 역사와 신화를 넘나들며 수많은 전쟁 길목에서 살아간 가문의 광기를 그만의 개성적인 문체로 그렸다.

이번에 펴낸 '호박색 밤'은 데뷔작인 '밤의 책'의 후속편이다. 전작의 마지막 페이지에 탄생을 알리며 수수께끼처럼 등장했던 페니엘 가계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 샤를빅토르 즉 '호박색 밤'이 마침내 이야기 중심으로 등장한다. 전쟁이 휩쓴 황무한 땅에서 페니엘가의 파란만장한 대서사는 펼쳐진다.

'밤의 책'이 1870년 보불전쟁부터 1945년 제2차대전으로 관통하며 인간의 광기와 잔인함, 그 속에서 명멸하는 페니엘가의 인물들을 그린다면 '호박색의 밤'은 프랑스 북동부 가상의 공간 '검은 땅'을 떠나 알제리와 파리 등으로 옮겨가며 전쟁 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알제리부터 프랑스 68혁명을 아우르며 망각 속 역사를 복원해낸다. 아울러 전후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분노, 결핍이 부른 인물의 광기, 샤를빅토르의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책은 역사적 현실과 신화, 우화를 떠올리는 서술이 돋보인다. 죽은 아이의 묘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 주인공이 노파를 쫓아 폐허 속을 헤매는 장면, 천사와 벌이는 싸움 등 환상적인 요소가 곳곳에 등장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문학동네·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한강희 지음

고등교육의 두 가지 화두는 바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이다. 일선현장에서 기획, 심의, 평가를 직접 경험한 대학 교수가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을 화두로 한 책을 발간했다. 한강희 전남도립대학교 교육복지학부 교수가 펴낸 '대한민국 전문대학 교육의 정체성: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은 23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21세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에서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산업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을 강조한다. 교육 개혁화, 학습 중심, 네트워크 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문대학의 화두로 제시되는 평생직업교육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직접 기획한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모델 및 역할 연구'에서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운영 모델, 역할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을 다룬다. 또한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 기준 및 방법, 평가 지표, 개발 및 성적관리와 질 관리 방안을 설계했다.

'4차산업혁명시대 고등직업교육의 역할체계 규정과 혁신 방향'은 고등직업교육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구조화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핵심 현안에 관한 접근과 모색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화해야 함을 역설한다.

양한주 동아미래대 명예교수는 "전문대학에 관한 교육내용, 대학경영, 정책개발에 이르기까지 학내 보직 및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보고서이기에 향후 전문대학 교육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한편 한 교수는 기자 출신으로 대학발전 기획단 기획위원, 한국전문대학교육30년사 집필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학술정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

이광호 외 지음

퇴계 이황(1501-1570)은 '동방의 주자'로 불린 조선시대 대유학자다. 성호 이익은 퇴계를 공자, 맹자에 견주어 '이자(李子)'라고 하기도 했다.

퇴계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인 안동 도산으로 내려간 마지막 귀향길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퇴계의 길에서 길을 묻다'는 안동 도산서원의 참공부모임 회원들이 2019년 봄, 퇴계의 귀향길을 450여년 전 일정 그대로 도보로 답사한 기록이다. 도산서원 참공부모임은 퇴계의 정신을 참답게 공부하고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2015년 조직됐다.

당시 69세였던 퇴계는 한양에서 충주까지는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충주에서 안동 도산까지는 말을 타고 육로로 갔다. 오늘날 이와 똑같이 갈 수 없었던 회원들은 서울에서 안동까지 243km(나머지 30여 km는 배를 이용)를 13일 동안 걸었는데, 이를 이광호 등 13인의 학자가 구간별로 나눠 썼다. 70리 여정은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단양, 죽령, 영주, 안동 도산서원으로 이어진다. 봄날의 꽃들과 그 길을 흐르는 남한강, 흙길의 아름다운 정취 등을 담고 있으며, 주변의 풍광과 역사는 물론, 퇴계의 인간적 면모도 엿볼 수 있다.

퇴계에 관한 옛 이야기도 풍성하게 실렸다. 여주 혼바위나무의 유래를 비롯해 1000원권 지폐에 담긴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가 퇴계가 고향 계상에서 '주자서절요'를 집필하는 모습을 상상해 그린 것이라 숨은 일화도 소개하며, 조선왕실의 골칫거리였던 '중계변무' 문제가 고려 말 명나라로 망명한 윤이와 이초의 농간 탓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푸른역사·1만7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